

"이중언어·문화 아는 차세대 교사 양성 중요"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장, 차세대 교사 워크숍서 강조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미동포 자녀의 우리말 교육과 정체성 함양에 앞장서온 한국학교의 차세대 교사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최미영)는 지난 17~18 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차세대 교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 일 연합뉴스에 알려졌다.

NAKS 의 2015 년 첫 사업으로 열린 이번 차세대 워크숍에는 미 전역의 14 개 한국학교지역협의회에서 선발된 17 명의 차세대 교사, 장동구 이사장과 최미영 회장을 비롯한 NAKS 임원 등이 참석해 차세대 교사의 실태 파악, 차세대 교사의 전문성 향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차세대 교사 확충과 리더십 강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미영 회장은 17 일 개회식 인사말에서 "미국 한인의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한국학교 교육 대상이 한인 2 세에서 3 세, 4 세로 넘어가고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입양인, 한류 팬 등 다양한 문화권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양쪽에 능통하면서 미국의 교육 환경과 문화에 익숙한 차세대 교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는 한동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동포 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워크숍 초청 강사로는 수지 오 LA 3 가 초등학교 교장, 차만재 프레즈노 캘리포니아주립대 정치학 교수, NAKS 부회장인 이승민 새언약한국학교 교장 등이 초빙돼 각각 '리더십과 변화 관리', '차세대 교사의 역사 인식', '소통과 공감'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 집중 강연과 더불어 수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교사 간 교육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회장은 "차세대 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들이 교육 혁신에 참여하도록 도움 계획"이라며 "NAKS 는 앞으로도 차세대 교사 양성을 위해 맞춤형 사업으로 워크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차세대 교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wakaru@yna.co.kr